

## ■ 현장과 시각 ■

타르 보상 3년 걸린다고요?



체희종

사회 2부 차장

충남 태안 앞바다에 서 흘러온 타르가 청정 지역인 무안·영광·신안 등 전남 서해안을 덮친지 벌써 1개월이 됐다. 더 이상 타르 유입은 없고, 긴급 생계지원자금도 설 이전에 지급된다. 보험사측의 피해조사도 마무리되는 등 겉으로는 수습 국면에 들어선 듯 하다.

하지만 김 양식장에서 만난 어민들의 표정은 누구 할 것 없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다. 우선 피해 양식에 대한 보상이 빨라도 3년 이상 걸린다는 사실에 어민들은 기가 막힌다. 보상 협상이 지속될수록 절차와 규정만을 따지는 보험사에 또다시 기가 질린다.

최근 전남도청에서 가진 보험사와 어민들의 간담회 직후 이들의 질랑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민들은 타르에 오염된 김발과 부죽대(김그물을 끌어 놓는 대나무) 철거와 관련, 철거비 산정을 놓고 보험사와 협의하게 대립했다.

오염된 김발은 전문 처리업체가 아닌 어민들이 직접 철거하는데 양측이 합의했으나 보상비 기준을 정하지 못한 탓이다.

보험사측은 철거시 소요된 선박유류비와 타르 제거 작업비 등을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어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은 보였다. 하지만 어민들은 김발 1책(1.8X40m) 철거 당 보상비를 미리 정하고 주장했다. 철거비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적으로 보험사 판단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어민들은 이의 제기 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한 어민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타르 피해도 없고 평온하기만 한 사람인데, 가해자와 보험사가 어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배려해줘야 하지 않느냐”며 사정했으나 소 귀에 경읽기였다. 보험사측은 끝내 자신들의 뜻을 관철했다.

무안과 신안, 영광 등 3개 지역 어민들은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어촌별 회의를 가졌다.

보험사가 철거 보상비를 구체화하지 않는 한 김발을 철거하지 말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시간이 길수록 억울하더라도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쪽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말 한마디로 대불산단 전봇대를 뺐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는 태안에서 타르도 뒤집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데, 우리 같이 힘 없는 어민들은 국민도 아닌가” 마을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한 어민의 푸념이다.

태안에서 이미 3명의 어민이 질망감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현 정부는 차기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어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이다.

/chae@kwangju.co.kr

## 삼성임원 3명 소환 조사

삼성특검 “조만간 피고발인 직접 수사 착수”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차명계좌’ 명의자로 확인된 삼성 계열사 임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오전에 김순주(59) 삼성카드 전무를, 오후에 민경춘(55) 삼성사회봉사단 전무를 각각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전날 조사를 받았던 이무열(50) 삼성전기 상무를 두 번째로 소환했다. 김 전무는 삼성카드 영업본부장과 채권관리본부를 거쳐 현재 콜렉션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며, 민 전무는 삼성물산 경리과장과 그룹비서실 임원, 삼성문화재단 이사, 삼성생명 상무, 삼성전기 전무를 거쳐 현재 사회봉사단 전무로 재직 중이다.

특검팀은 이를 임원을 상대로 차명계좌 개설 경위와 개설에 동의했는지 및 차명계좌가 본인의 것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의혹을 캐물었다.

삼성증권 등 계열사 실무자 5~6명도 출석해 차명계좌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공보관인 윤정석 특검보는 ‘참고인 조사’ 위주로 초기 수사가 진행되면서 참고인들의 비밀조로 수사가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과 관련, “참고인들만 오라고 하다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조만간 피고발인 조사 등 ‘사건 당사자’들을 상대로 보다 직접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김순주 삼성카드 전무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31일 오전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삼성 의혹’을 둘러싼 각종 고발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 중이며, 핵심 의혹인 ‘불법 경영권 승계’의 경우 에버랜드·서울통신기술·삼성SDS·e삼성과 관련한 4건의 고소·고발사건이 수사 대상이다. 이전에 삼성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 임원들은 ‘에버랜드 사건’ 피고발인이며, 이재용 전무는 핵심 참고인이다.

특검팀은 윤씨를 상대로 DMC 땅 분양과 KGIT빌딩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 과정에서 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호영 특검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중요 소환자가 많다. 수사에 탄력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씨를 상대로 DMC 땅 분양과 KGIT빌딩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 과정에서 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작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지분 가운데 김재정씨 것은 김씨 것이 맞지만 이씨의 것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한 김재정씨는 기자들에게 “도곡동 땅과 다스는 모두 내 것”이라고 말해 당선인과의 무관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윤여덕·김재정씨 소환

BBK 특검, 상암 DMC 특혜분양 수사 고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오전 상암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주)한국산학협동단지 대표 겸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 이사장 윤여덕씨를 소환 조사했다.

정호영 특검은 이 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중요 소환자가 많다. 수사에 탄력이 많이 붙어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씨를 상대로 DMC 땅 분양과 KGIT빌딩의 오피스텔 용도 전환 과정에서 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작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지분 가운데 김재정씨 것은 김씨 것이 맞지만 이씨의 것은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한 김재정씨는 기자들에게 “도곡동 땅과 다스는 모두 내 것”이라고 말해 당선인과의 무관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 ‘슈퍼 화요일’ 앞둔 美대선 요동

공화, 줄리아니 사퇴…매케인 지지 선언

민주, 에드워즈 중도하차 양자대결 구도

‘11.4 대선’에 나설 미국 민주·공화 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과 공화당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이 대권도전을 포기키로 해 미 대선 경쟁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이번 대권경쟁에서 최대 변수로 뛸 내달 5일 ‘슈퍼 화요일’ 대선을 앞두고 앙당 경쟁구도에 큰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어느 후보가 이득을 보게 될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 헐리리-오바마 경쟁 더 치열할 듯=그동안 사실상 헐리리-오바마-에드워즈 3파전으로 치러져 온 민주당 당내 경선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에드워즈의 중도하차로 양자대결로 바뀌게 됐다.

에드워즈는 이날 작년에 대선출마를 선언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지역인 뉴올리언스에서 부인 엘리자베스 및 세 자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역사가 그 길을 밟히도록 내가 버커셔야 할 때”라며 대권도전 중도사퇴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헐리리와 오바마는 에드워즈 지지표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더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워즈 지지표가 어느 후보에게 쏠리느냐가 헐리리와 오바마간 대결의 대세는 물론

민주당 대선후보직을 결정짓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 줄리아니 지지 선언으로 매케인 독주 강화될 듯=공화당 대권주자들 간에도 ‘슈퍼 화요일’ 대전에서 줄리아니 지지표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줄리아니는 아직 공식적으로 경선포기장을 선언하

지 않았지만 조만간 경선포기와 더불어 매케인 지지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뉴햄프셔에 이어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프라이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매케인이 줄리아니의 중도하차로 인한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국 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매케인은 줄리아니 지지까지 등에 업게 될 경우 내달 5일 ‘슈퍼 화요일’에 압승, 확실한 독주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원희)이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기자회견 중 경선포기를 발표하면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주) 지지를 선언한 뒤 매케인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 日 열도 ‘중국산 농약 만두’ 파동

## 中 대륙 ‘의약품 오염 사건’ 파문

중국산 ‘농약 만두’가 일본 열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는 의약품 오염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백혈병을 앓고 있는 중국 소녀 엔전니(5)는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에 한껏 부풀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중국의 한 제약회사가 제조한 항암제 치료를 받은 뒤 병이 낫기는커녕 혼자서 걸을 수도 없게 됐다. 제약회사 측은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정부 조사결과 항암제가 오염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의 제약회사는 중국 굴지의 제약회사인 상해의약그룹을 자회사로 운영하는 회사다. 상해의약그룹은 지난 몇년간 다국적 제약회사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상해의약그룹은 지난 1년간 총 1천230t의 냉동 만두를 수입했고 다른 2개사도 76t를 수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해온데 이 회사 제품은 미국과 캐나다, 일본, 영국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중국산 ‘농약 만두’ 문제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한 냉동 만두를 먹은 10명이 암몰증상 상태를 보이는 바람에 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만두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를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JT주식회사가 이 공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 총 1천230t의 냉동 만두를 수입했다고 다른 2개사도 76t를 수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JT주식회사가 이 공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 총 1천230t의 냉동 만두를 수입했다고 다른 2개사도 76t를 수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마술(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감동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자랑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차원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 / 집 / 대 / 상 ◆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교육장소

• 광주(금남로 무등고시학원) · 목포(하동 숲속이야기 평생교육원)

• 순천(연향동사거리 GMB영어학원) 문의 : (062)434-7857

★ 각종 행사(동문회, 교회행사 등) 출장 공연★

매직&매직 아카데미 ☎ (062)434-7857

=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  
겨울방학 교육학+전공 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고수준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리듬교육 강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증개시//주택관리사 학적설명회 =  
매주 -(화,목) 오후 6시-(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 (062)222-6790

등부경찰서 옆  
www.hgosi.net

= 가장 확실한 합격의 길!! 무등과 함께 하십시오!!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